

# 새만금 잼버리 유치단, 인터아메리카 표심 공략

### 한국 대표단, 28일 미 휴스턴 '스카우트 총회' 에서 경쟁국 폴란드와 프리젠테이션 대결 예정

전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위해 또 한 번의 외국길에 오른다. 24일 도에 따르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새만금개발청, 한국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들이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휴스턴 등지를 방문한다. 모두 26명으로 구성된 이번 한국 대표단은 오는 27일 나사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한 뒤 28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인터아메리카 스카우트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총회에서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폴란드와 각각 8분씩 프리젠테이션을 가질 예정이어서 34개 인터아메리카 회원국에 대한 표심 공략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대표단은 2019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릴 예정인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찰스턴을 방문해 준비상황과 현장 등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법정부 추진위원회'가 이달 내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는 전북지역 인사 10명을 포함한 30명 규모로 꾸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형기자



**신법전 만들어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 제안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 서고를 살펴보고 있다.

## ▶ 박 대통령 개헌 논의 제안 반응

### 정의장 "국회가 준비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여야가 협력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과거의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에 대해 평가한다"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데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비리덮는 개헌 안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한 것과 관련,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며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 생각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의심스럽다.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 하더니 그 새 경제가 좋아 지기라도 했냐"며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국민들 삶을 낮게 만드는 민생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권력형 비리개헌과 민생파탄을 덮기 위한 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략적 방탄 개헌"이라며 "민생을 핑계한 채 비리개헌 위기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을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정략적 정치"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민생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 추미애 "박정희 3선개헌 떠올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예전에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 개헌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 직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미친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 음모처럼 비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하는 분"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권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이 경제난국에 최순실 게이트, 우병우 사태 등 형클어져 있는 걸 하나도 풀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고,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 미르 수사 연말까지 갈 듯 vs 최순실 오래 못 버텨?

### "현금·해외 빼돌린 돈 많으면 귀국 난망"... "재산 대부분 국내에... 길지 않을 듯" 전망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60·최서원외로 개명)씨의 해외 도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씨가 장기도피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에서부터 서둘러 독일 거주지를 떠난 정황들을 볼 때 오랫동안 모습을 감추기 어려울 것란 전망도 있다. 검찰 수사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도 결국 최씨가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에 달려있다. 현재 검찰은 최씨가 재단자금의 불법 전용 문제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점도 최씨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최씨 수중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있느냐에 따라 그의 도피 기간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0여일 전 독일로 출국할 당시 넉넉한 자금을 챙겨갔거나,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충분할 경우 최씨의 잠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묶여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독일에서 잠적을 하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꼽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인력 투입을 확대하고 휴일에도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것도 사법처리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입국 시 통보조치토록 하는 한편 재단에서 최씨로 흘러간 자금 흐름을 살피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에도 착수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경우 올해 연말까지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끌고가는 것은 여권과 검찰 모두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정몽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23일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등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된 것은 검찰의 속도전 의지를 보여준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 자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도 문제가 될 게 있으면 차라리 지금 적당히 두드려 맞는 게 낫지, 정권 바뀌고 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KOREA MASTER BRAND AWARDS 2016

##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